

투데이 칼럼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재공론화에 즈음하여

이 시대 큰 과제 중 하나는 수만 년 동안 방사능을 지니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다. 지금까지 알려진 최선의 방법은 깊고도 단단한 바위 속에 영구적으로 매장하는 것이다. 해당 중앙부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최종부지 선정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또다시 준비 중에 있다.

참고로 정부는 핵심기술을 가진 선진국에서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핵 재처리 연구의 성공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준위핵폐기물'을 '사용후핵연료'라 지칭하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재공론화가 정상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중간처분장이 2035년, 최종처분장은 2053년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한빛원전과 고리원전의 저장수조 내 핵폐기물은 2024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 엿박지에 해당하는 15년 내지 30여년 동안 원전 부지 내 임시 건식저장하는 방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를 원전 주변지역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소 내 핵폐



전민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기물 저장 수조를 비우지 않는다면 원전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블랙아웃 사태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임시 건식저장시설이 안전하다는 홍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핵폐기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식혀주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지 내 특히 원자로에 가까이 두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한다. 또한 임시 건식저장은 최종 처분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영구처분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소재지에서는 임시 건식저장시설 구축에 반대하면서도 한편에

서는 원전 발전 중단으로 인한 지 원금 축소를 염려하고 있다. 또한 핵폐기물 보관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도 부과를 위해 개정 법률안들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중앙부처는 최종부지 선정 재공론화에 앞서 원전 소재지 위주의 준비단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임시 건식저장시설 구축 여부와 재공론화 방향 등을 결정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단 구성에 있어 피해당사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전북, 특히 고창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서는 환경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원자력안전법」에서도 관

계시설을 구축할 경우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함에도 중앙부처는 제외한 이유에 대해 건식저장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됨으로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원전은 잘 관리되고 있으므로 안전하다는 주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가 내태하거나 비상식을 상식이라고 당연히 할 때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고창군은 주민 안전 지킴이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여러차례 방문하였고, 공론화 준비단 구성에 있어 고창주민을 포함하여 줄 것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다.

이번 재공론화는 박근혜 정부시절 실시했던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준비단 구성에서부터 모순(矛盾)이 아닌 정도(正道)를 걸음으로써 부지 선정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청년층 불잡아들 일자리 대책 절실

청년층을 불잡아들 대책이 절실하다. 도내 젊은이들 상당수가 전북에 아무 미련이 없다는 게 또다시 확인되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지역을 떠나고 싶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은 친구들을 도내의 젊은이들은 부러워하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 지자체는 분발해야 한다. 신규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간헐적으로 말하지 말고 일자리 늘리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만 되겠다.

지역 경제가 늘 빨간불이라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네 구태의연한 대책으로는 그 악랄을 기대할 수 없다. 미취업을 전국 1위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다. 전북도는 이 부러운 기록을 과연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전북도가 전국 최하위 성적표 앞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북도는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말이지 이래서는 곤란하다. 먼저 출산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주어야겠다. 현재 청년고용 열기가 식어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 열기를 달구어야 한다.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겠다. 정규 일자리가 기대치보다 못했는데 비정규 일자리마저 신통치 않은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 밀바다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일자리 약속을 실천으로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거역을 투쟁하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겠다. 알바 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에 매달려 고달파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결혼이나 인생 설계를 말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침은 실현 의지가 관건이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상경하는 세월이 그 얼마나 계속돼야 하는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관측은 일자리 창출에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

농업 경쟁력 더 강화해야

전북도에게 할 말이 있다. 농업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겠다. 전북도가 삼락농정의 효과를 말했지만 아직은 만족을 말할 수 없다. 농가 소득이 올랐지만 농민들의 경기 체감은 예전 그대로이다. 이같은 사실은 전북도의 삼락농정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찌나 농촌 환경이 좋아졌다고 보도할 때도 있지만 일부 지역만 그렇지 모든 농촌에 해당되는 풍경은 아니다. 도내 농촌 인구가 늘지 않고 있음이 그것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농촌 인구가 현상 유지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전히 희망 사항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농업의 전망이 밝다고 외쳐봤자 경쟁력이 없거나 약하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나 경쟁력이 지금과 같지 않고 훨씬 더 강화 된다면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귀농하는 젊은이들이 아직도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희망의 불씨가 있다. 전북도는 잘 생각해야 한다.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손발 뻗어야 있다. 농업인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일자리가 완벽해야겠다.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가 혜택을

보지 않고 다른 이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전북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농업인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삼락농정에 힘을 기울였으므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 뛰어내려야겠다. 전북도는 전통적으로 오랜 농도였으므로 그 이름값을 해야 한다.한국 농업의 선두 주자의 자리를 확실히 해두자는 당부이다. 청와대에 납품했던 군산의 철새도래지 쌀을 비롯해서 정음의 단종미인쌀 등 우리 고장 쌀의 품질이 우수함이 지난 십 수 년 간 입증했던 걸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소비 시장에서 홀대 받는 이유가 무엇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또 지적하는 바이지만 도내 쌀 브랜드의 난립 문제를 짚어줘야겠다. 브랜드 간소화로 이미지를 제고하는 당부이다.

전북도는 농업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다른 산업이 각광받는 시대라고 농업을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도내 농민들은 제대로 된 쌀값을 못 받아 속이 썩고 있다. 전북도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 힘써야 하는 이유이다.

독자제언

찜질방에서 물건 관리 철저

찜질방에서 물건을 훔친 범죄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었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목에 끼어있는 띠카를 키를 훔쳐 시계, 지갑, 현금 등을 훔친 것이다. 나이드 마흔이 넘었는데 무직이었다. 조화를 해 본 결과 사기와 절도로 기소증거자였다. 이미 그의 몸에는 찜질방 도둑질이 몸에 익숙해졌던 것이다.

이렇게 찜질방에서 물건을 훔치는 범죄자들은 피곤하여 찜질방 하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옆을 지나가면서 띠카를 키를 훔쳐 물건을 훔치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수법을 자주 사용한다. 물론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범행을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

간혹 요깃거리를 하기 위해 지갑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범죄자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 최소한의 돈을 소지하고 지갑은 낱아야 한다. 이용자가 많은 주말에 신나게 놀다가 봤는데 지갑이 없다면 어쩌하겠는가?

그리고 귀중품의 경우는 반드시 카운터에 맡겨야 하며 너무 피곤해 잠을 청할 때, 불안할 때에도 띠카를 키를 카운터에 맡겨야 한다. 요즘 찜질방에는 카운터 안에 보관함이 따로 있어서 귀중품을 관리해주므로 찜질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숙지해야 한다. 본인 물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도난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

이진제 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찰장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아일랜드 낙태 허용 국민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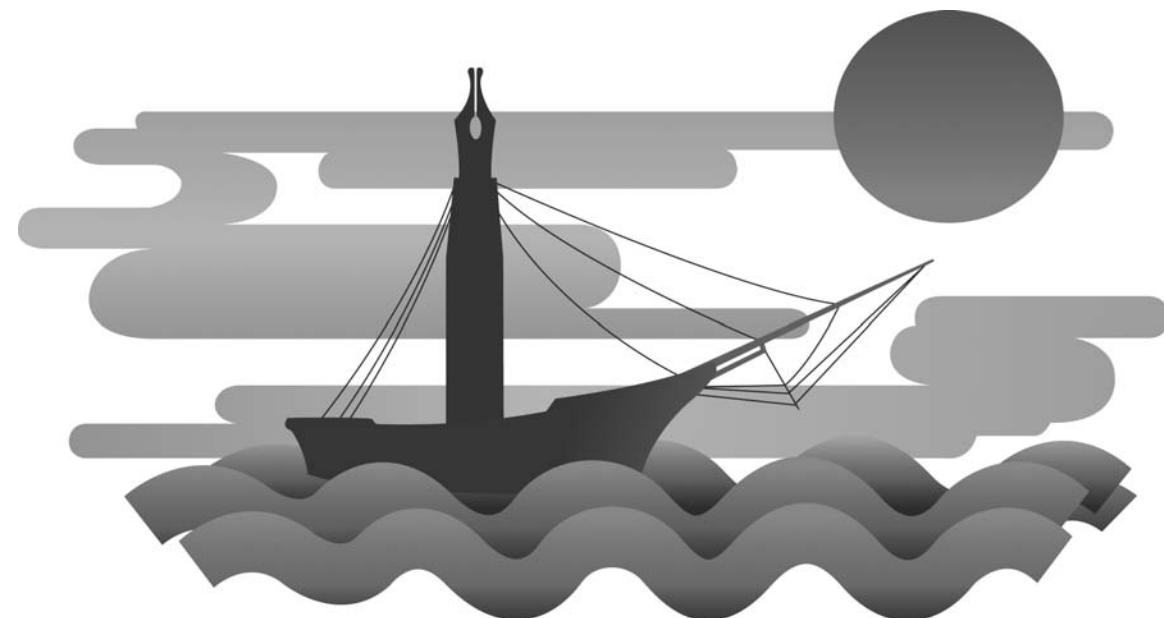
아일랜드가 25일(현지시간) 낙태를 허용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놓고 국민투표를 벌인 결과 출구조사에서 찬성표가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아일랜드 노크의 한 투표소에서 한 여성이 투표를 한 뒤 아이와 함께 투표소를 떠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